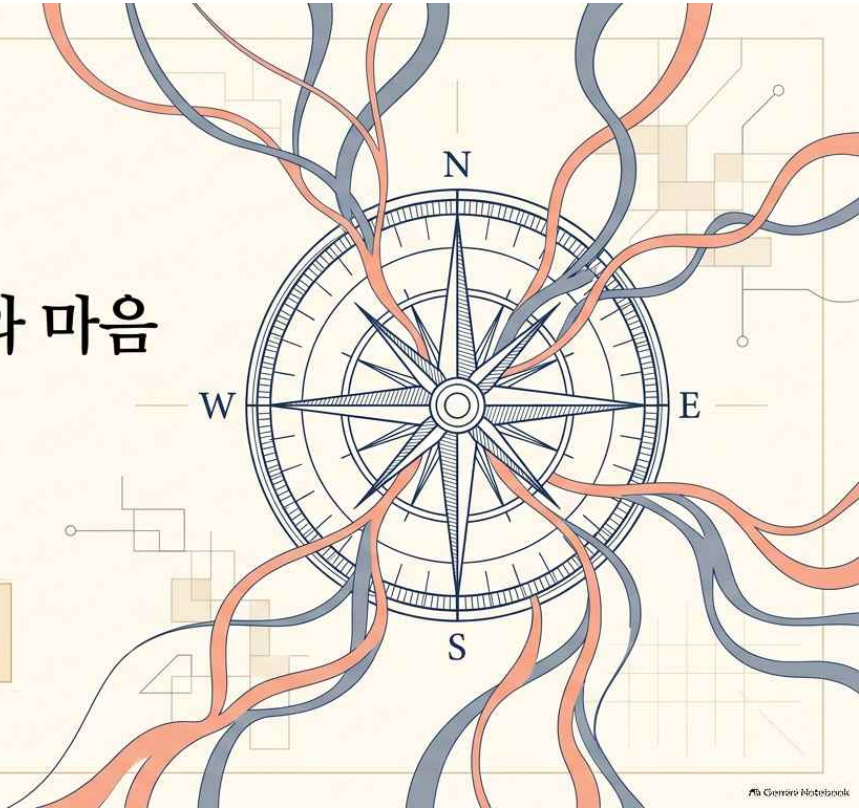


AI로 만나는 우리 아이의 진로와 마음

고1 자녀 학부모 대상
AI 진로 워크숍

AI에게 답을 맡기기보다,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질문해보기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AI 시대인데,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AI에게 너무 의존하면
생각하는 법을 잃지 않나요?

아이가 AI에게 잘 질문하는 능력,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AI 시대 대비를 위해
부모가 뭘 해줘야 할까요?

오늘, 어떤 질문이 가장 궁금하세요?



알려주는 AI

검색 · 질문 · 번역 · 요약



만들어주는 AI

글 · 그림 · 음악 · 영상 · 코딩



일을 실행하는 AI (AI 에이전트)

예약 · 신청 · 비교 · 일정 관리 · 업무 처리

기업 활용: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업무에 AI 사용,
3년 만에 53% 수준 사용 확산 (Stanford AI Index 2026)

국내 실증 사례: 행정안전부 통합형 AI 국민비서,
한국관광공사 AI콕콕 플래너, 서울시 모바일 AI 에이전트

AI는 이제 ‘답을 주는 도구’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The Explorer’s Journal’

10여 년 전 (예상)

“반복적인 일은 기계가 대신하겠지만
창의적인 일은 사람이 할 것이다.”

작가, 화가, 음악가, 창작자는 안전하다.
(86~87% 자동화 위험 낮음 - Nesta-Oxford 2015)

지금 (현실)

“글, 그림, 음악, 영상, 코딩은 물론
정서적 교감까지 돕는 AI.”

미디어·웹 관련 직업 노출도 급증 (ILO 2025).
AI 기반 심리치료 챗봇이 유의미한
치료적 관계감 효과 입증 (NEJM AI 2025).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 안전한가’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 × 어떤 학과가 취업이 잘 될까?
- ×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전,
아이를 먼저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우리 아이는 무엇을 좋아할까?
- 무엇을 할 때 스스로 움직일까?
-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 무엇을 직접 경험해보게 할까?
- AI를 이용하면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AI가 잘하는 것



- 문서 작성 · 분석 · 정리
- 검색 보조 · 번역 · 계산
- 기본 코딩 및 아이디어 확장



사람에게 중요해지는 힘 (WEF 2025)



- 개성 · 취향
- 질문 · 호기심 · 열정
- 놀이 · 경험
- 관계 · 신뢰 · 감성

다가올 미래의 역량 = [AI 활용능력] × [자기 분야] × [인간적 역량]

AI냐 인간성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할 탐험의 경로 (Workshop Journey Map)

Step 1 (35~75분)

AI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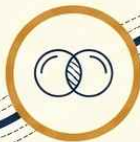
AI에게 질문을 던져 아이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Step 2 (75~100분)

관점의 렌즈

내가 보는 아이 vs 아이가 보는
자기 가치관 비교 분석



Step 3 (100~115분)

관심사의 해체

관심에서 행동, 경험을 거쳐
진로로 확장하는 프로세스 맵



Step 4 (115~120분)

첫걸음 설계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 가능한
1년의 작은 경험 계획하기



Step 2 (75~100분)

관점의 렌즈

내가 보는 아이 vs 아이가
보는 자기 가치관 비교 분석

Step 1: ChatGPT에게 우리 아이를 소개해보세요.



직업을 추천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7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해줘.

AI에게 답을 말기지 마세요. AI의 질문을 통해
부모가 아이에 대해 놓치고 있던 단면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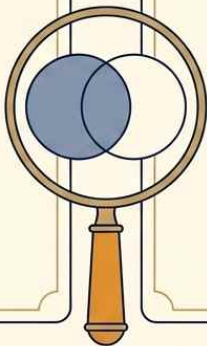
누가 맞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부모인 나는]

좋은 직업은? _____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_____

잘한다는 것은? _____



[우리 아이는]

좋은 직업은? _____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_____

잘한다는 것은? _____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말고 두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비교 분석해줘.
그리고 오늘 저녁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질문 3개를 만들어줘.”



좋아하는 대상(명사)에서 좋아하는 행동(동사)을 찾아내야 합니다.

The Explorer's Journal

[Step 1] 관심
예: 게임

[Step 2] 행동
예: 승리를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전략을 짤

[Step 3] 강점
예: 분석력, 논리적 사고

[Step 4] 경험
예: 친구들의 데이터를
모아 미니 프로젝트 진행

[Step 5] 진로 분야
예: 데이터 기획자,
비즈니스 분석가

! 직업 이름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직업의 이름보다 '무엇을 배우는가'를 비교해 확장해야 합니다.

고1, 앞으로 1년 동안 해볼 작은 경험들

1 학교 활동

(동아리, 세특)

2 학교 밖 활동

(지역 사회, 캠프)

3 독서 · 탐색

(관련 분야 서적 및 영상)

4 작은 프로젝트

(가벼운 산출물 만들기)

5 사람 만나기

(관련 분야 멘토/선배 인터뷰)

무슨 직업을 할까? 보다 '지금 무엇을 경험해볼까?'를 고민하세요.
이 중 딱 1~2개만 정해봅니다.

AI 탐색
(탐색의 시작)

광범위한 학과 정보, 트렌드, 아이디어 확장
(가능성의 극대화)

크로스 체크

편향된 정보 및
존재하지 않는 전형 걸러내기

공식자료
(확인의 끝)

대학 입학처 모집요강,
공식 교육청 자료,
실존하는 커리큘럼 검증

AI 입시정보, 어디까지 믿을까? AI는 탐색의 폭을 넓히는 시작점이며, 확인과 결정의 끝은 반드시 **공식자료**여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무엇을 ? 새로쳐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우리 아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AI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오늘 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오늘 AI에게 우리 아이 진로의 ‘정답’을 받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더 물어보고, 무엇을 경험하게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나침반’을 찾았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요즘 네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직업을 결정하는 대신, 아이의 오늘을 이해하는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